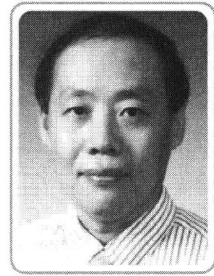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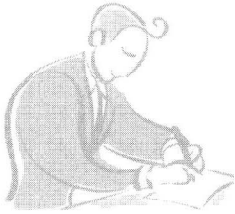


## 산업의학의 발전을 생각하며



홍 윤 철  
서울의대

최근에 불거진 특수건강진단의 문제점을 보면서 자괴감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양을 찾아서 비난함으로써 문제를 모면해보려는 듯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면 현재와 같은 집단검진 방식의 특수건강진단은 마땅히 정리되고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노출 및 건강영향 평가 방식이 논의되어야 하고 이는 개인 혹은 각 기관의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료 의사들로부터의 비웃음과 사회적 비난, 심지어 노동부 담당공무원의 질책을 받아가면서 누가 보아도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인 현재의 특수건강진단의 틀을 우리가 안고 갈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방안을 생각해본다면 우선 특수건강진단은 직업성질환의 예방과 진단을 위한 관리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고 또 이는 직업성질환의 요양 및 작업 복귀를 위한 임상의료와 산재관리 시스템과 연결된 체계 속에

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산업의학 관리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특수건강진단기관, 산재요양전문기관이 각각 전혀 소통과 연결이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산업의학의 발전은 그야말로 요원한 일이 될 것이고 앞에서 이야기한 특수건강진단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학 관리체계의 한가운데에는 산업의학과 외래가 자리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의학과 외래의 개설은 직업성질환의 진단과 관리에 관련한 임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로 전환하게 만들 것이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회사의 지정이 아니라 선택에 의하여 원하는 산업의학과 외래를 방문하고 필요한 진찰 및 검사를 받게 된다면 직업병 발생을 원하지 않는 회사의 지정에 의해서 건강진단이 수행되는 모순된 산업의학서비스 시대에서 실제 의료수요자 중심의 산업의

학서비스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여러 형태의 산업의학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산업의학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을 보면 산업의학과 외래를 개설하여 근로자 스스로가 병원을 찾아 직업성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된 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설치된 산업의학과 외래도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산업의학서비스가 집단 검진 형식의 특수건강진단 형식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산업의학과 외래라 할지라도 실제로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의학과 외래를 개설한다고 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의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근본적인 산업의학 관리체계의 재정립과 더불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산업의학과 외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는 지 생각해보자. 우선 산업의학과 외래에서 보는 환자는 무증상의 건강한 근로자부터 상당한 수준의 임상적 검사를 요하는 질환자이므로 산업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각과 전문의의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 및 장비는 기존의 외래 시설이면 충분하고 좀더 특화한다면 폐기능 검사나 피부알레르기 반응검사, 신경학적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이보다도 더욱 산업의학과와 특성에 맞게 갖추려면 배치 전 건강진단이나 적성평가를 위한 기기를 갖추

면 될 것이다.

산업의학과 외래에는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특수건강진단을 위하여 찾아오는 근로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겠지만 직업성질환을 확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각 의료기관에서 의뢰되어 오는 환자들도 찾아올 것이며 이들은 매우 다양한 질병과 다양한 수준의 환자들일 것이다. 이러한 환자를 볼 때 주로 산업의학과에서의 진료범위는 업무관련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직업성질환의 진단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치료부분은 타과와 연계하여 치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내과를 통해서서는 직업성천식의 원인물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관자유발 검사, 피부과에서는 직업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의 항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부감작 검사, 호흡기내과와 흉부외과에서는 폐 병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검, 진단방사선과를 통해서서는 암과 신경 병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CT, MRI 등의 영상검사,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와는 직업성 신경계질환의 병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이비인후과를 통해서서는 난청 및 이명의 감별진단 및 평가를 위하여 객관적 검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산재요양 신청이나 장애도 평가를 외래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산업의학은 학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어갈 것이다. 물론 산업의학과 외래에서 근로자 작업 적합성 및 장애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성을 갖추고, 산업의학전문들이 작업 관련성과 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